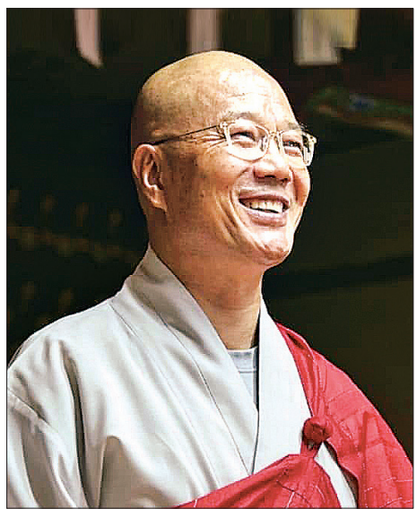
애독자가 전하는 메시지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8주년을 맞았다. 1994년 창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신문을 구독한 애독자에게 현대불교신문에 대한 평가와 추억들을 들어봤다.

정리=박재완 · 신성민 기자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 보국사 주지

불안한 인류 미래에 해답 제시해 주길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벌써 28주년이 되었네요. 현대불교신문 창간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의 시대가 아니었던 시절이라 모든 정보나 지식을 책이나 종이신문 등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얻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상에서 볼 때, 당시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은 단순히 교계 언론사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넘어선 것으로, 불자들에게는 좀 더 새롭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고, 잠재적 불자들에게는 불법 홍포의 새로운 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에는 새로운 시도의 캠페인과 행사 그리고 새롭고 알찬 기획의 지면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고 밝은 이야기와 소식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런 지면들이 불자들의 내면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는 불교홍포로 이어져 불교의 외연이 넓어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인류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많이 아쉬운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우리 인류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너의 괴로움의 나의 괴로움이라는 생각으로, 안으로 안으로 성찰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그 길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신문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자정신' 지켜가는 정론지로 거듭나야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년 뒤에는 서른 살로 완연한 성년이 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와 현대불교신문과의 인연도 20년을 훌쩍 넘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초창기에 '스님 이야기'라는 연재물이 있었고, 몇 달 동안 해당 연재에 원고를 쓴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6개월, 3~4년 전에 2년 정도 연재원고를 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저는 정말 '좋은 인연'입니다.

1994년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짧은 시간에 3대 불교신문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한국불교 언론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의 법문과 활동을 부각함으로써 비구니 · 여성 불자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불교 최초 포털 '부다피아'와 속보 형식 도입한 인터넷 불교뉴스 사이트 '붓다뉴스'는 시대를 선도하는 미디어 포교 매체였습니다.

실제 현대불교신문은 비구 · 비구니, 승가 · 재가에 관련된 기사가 평등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계종만이 아닌 한국불교의 여러 종파의 소식도 전해줘 다양한 각도로 불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세계 불교의 다채로운 면면들을 조명하는 지면도 좋았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언론이 지켜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꼭 해야 할 말은 하는 '기자 정신'입니다. 정론직필을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무언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십시오.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길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성태용

청명문화재단 이사장

다양한 言路 제공 강점 문제 제기 역량 강화를

현대불교신문은 대행 선사께서 원력을 내시어 창간됐고, 당시 비구니스님이 만든 첫 불교언론이라서 인구에 많이 회자됐습니다. 출발부터 참신하고 신선했던 만큼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창간 직후 논설위원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며 논설위원 위촉에 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불교계에 하고 싶은 고언(苦言)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에서는 꼭 주제를 정해서 글을 청탁했습니다. 그 청탁 주제들이 대부분 불교계 현안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 할 이야기겠지만, 이를 지적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언로(言路)를 현대불교신문이 꾸준히 제공해왔다는 점은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현대불교신문은 재가불자 운동의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선우'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현대불교신문이 기사를 통해 재가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줘 큰 힘이 됐습니다.

최근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불교 언론들을 보며 아쉬운 점은 불교 내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흐릿해졌다는 것입니다. 불법홍포와 호교적 시선도 중요하지만, 내부 문제에 대한 비판도 그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공자는 30세를 '이립(而立)'이라고 했습니다. '이립'은 모든 기초를 세운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립을 앞둔 현대불교신문이 기초를 잘 세워 불교 대표 정론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항상 초심 상기하며 시대 선도 언론 되길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욱이 전임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창간 축하 메시지에 임하는 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새롭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창간하신 대행 선사께서는 창간의 지표로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현대화, 불교의 세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이 세상에 나온 이유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28년간 대행 선사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불교계 소식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 맞는 수행법과 지구를 위한 환경문제 등 전반적인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대행 선사의 유지를 받들며,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행 선사께서 일구신 한마음선원은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와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두 차례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대의 승단이 모색해야 할 의제와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전 인류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세계 석학들이 한 지리에 모여 지혜를 모았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두 차례의 국제학술대회를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역할과 창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탈종교화 등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예전에 비해 대중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교계 언론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모두는 하나의 마음으로 창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시대에 필요한 문서포교에 계속 정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박종수

前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김영숙

현대불교신문 초대 기획위원

불교 생활 · 현대 · 세계화 현대불교신문의 근본 자리

저와 현대불교신문의 인연은 대행 선사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초대 사장인 김광삼 씨를 제가 대행 선사를 만나게 했는데, 처음에는 비구니라서 인사하기를 저어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김광삼 씨에게 "당신은 어머니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어머니 같은 스승에게 왜 절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나무랐습니다. 그 후 김광삼 씨는 현대불교신문 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저 역시 대행 선사께서 창간하신 신문이기에 더욱 애정하게 됐습니다. 창간 직후 제가 10여 명 정도의 신도를 모아 '심단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구독 배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신문을 포장해 전국 방방 곳곳의 시장과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며 현대불교신문을 알렸고, 스님과 불자들에게는 국군아저씨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해줄 것을 권선했습니다. 오로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불법홍포의 사명감이 있었기에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해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불교신문은 다릅니다. 대행 선사의 법문을 지상 중계하는 '길을 묻는 이에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좋지 않아 신문을 읽는 것이 어렵지만, 대행 선사의 법문은 꼭 찾아 읽고, 또 읽습니다. 저 같은 독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대행 선사께서 현대불교신문의 사훈으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내세우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근본은 저 사훈에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연꽃을 피워내면 그 향기는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 법 합 창 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